

선·후배 장학금 대물림 16년째 이어져 '귀감'

전주대 가정교육과 교수·동문
중등 임용고시 합격률 향상 기여

지난 10일 전주대 진리관에서 가정교육과 교수·동문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가정교육과 교직원과 재학생, 협직 교사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학년별 2명의 학생에게 각각 장학금을 수여했다.

전주대 가정교육과 교수·동문 장학금은 2003년 교수 장학금을 시작으로 2006년 동문 선배들도 참여하며 16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교수·동문 장학금의 효과였던지 2003년까지 단 한 명도 없던 임용고시 합격자는 2003년 교수 장학금을 시작한 다음 해, 8명의 학생이 나왔다. 그리고 2006년 처음으로 교직에 나선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모으기 시작하여 장학기금은 꾸준히 늘었고, 기금이 늘수록 가정교육과의 임용 합격률과 그 위상을 높이졌다.

가정교육과의 입학 정원은 30명이지만 2014년부터 매년 8명 이상의 중·고등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11명 교원 임용 합격자를 배출하고, 전북지역 가정교사 할당인원 5명 모두를 전주대 가정교육과 학생이 차지했다.

이제는 교수·동문 장학금은 임용고시 합격의 징표가 됐을 정도다. 교수·동문 장학금을 받은 재학생은 더 잘 돼서 많은 장학금을 냈다. 가정교육과 백민경 교수(가정교육과 00학번)는 2003



지난 10일 전주대 진리관에서 가정교육과 교수·동문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가정교육과 교직원과 재학생, 협직 교사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학년별 2명의 학생에게 각각 장학금을 수여했다.

년 처음으로 교수 장학금을 받아 2004년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2018년에는 전주대 가정교육과 교수로 임용됐다.

11일 전주대를 찾은 봉서중학교 김수향 교사(가정교육과 04학번), 충남부여중학교 김혜수 교사(가정교육과 10학번), 전주평화중학교 임혜령 교사(가정교육과 07학번)도 교수·동문 장학금을 수여했다.

충남부여중학교 김혜수 교사는 "재학생들에게는

동문회에 들어가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목표가 될 정도로 동문 장학금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교단에 서기 위해서 많은 힘든 과정이 있지만, 모두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교육과 교수 장학금은 학과 교수 전원이, 동문장학금은 임용고시 합격한 동문들을 중심으로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금 기금은 5,000만원에 달한다.

/장은성 기자

러브인 교월동, 다문화가정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김제시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우근)는 "러브인교월동"을 주제로 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 진행을 위해 11일에 베트남 음식점에서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29일 제 1회로 개최되었던 "러브인교월동"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베트남, 중국, 필리핀 3개국 대표와 함께 총 13명의 다문화가정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속에서 진행되었다. 회의 개최 결과 제2회 러브인교월동 행사는 10월 16일에 추진되며 다양한 한국음식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장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이에 정우근 교월동장은 "다문화가정이 교월동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다행히 큰 관심과 열의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되어 2회 러브인교월동도 성공리에 추진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성료

임실군은 13일 관촌면 공용 주차장에서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으로 관내 지역 청소년과 함께 '모두가 one 되고 want하는 세상' 이란 주제로 관내 청소년의 날, 댄스 등 동아리공연과 외부 청소년들의 비보이 및 탑승 등을 공연하게 된다.

특히 유희그리기, 댄스페우기, 기죽공예, 네일아트 등 진로와 문화 체험부스는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해 또래 청소년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연간 6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임실=진홍기자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장 노인대학 특강

신갑수 진안군의회 의장이 11일 노인대학에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제36기 노인 대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에서 신갑수 의장은 진안군의회의 기능과 노인복지 정책 등에 대해 강의했다.

신갑수 의장은 "진안은 전체 인구의 32%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대학에서 배움을 통해 어르신 각자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지난 1982년 개교해 2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의산소방서, 안전습관 형성 이동안전 체험차량 운영

의산소방서(서장 김봉춘)가 지난 10일 어린이들의 안전습관형성과 스스로의 재난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운영,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활 속 소방안전 체험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여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행사에서는 열·연기·지진체험, 소화기체험, 심폐소생술체험 등이 실시되어 어린이들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은 의산소방서 소방대원 9명이 아파트로 찾아가서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소방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아파트 관계자 및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의산=우병희 기자

고창소방서, 체전 경기장 배치 소방안전요원 안전교육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11일 고창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경기장 내 소방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소방안전교육은 의안전한 경기운영에 보이지 않는 첨병역할을 담당하고자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었으며 2인 1조로 경기장에 편성되어 경기장 안전순찰, 사고발생시 상황전파, 초기소화, 인명대피유도, 단순 응급처치 등 활동을 담당한다.

12일부터 고창군공설운동장, 고창군립체육관에 경기 1시간 전부터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관중이 퇴장까지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육행사에 안전요원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한 의용소방대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안전으로 하나님되는 체육인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높추지 않고 소방안전에 민첩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제 238 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월례 회의

일시 : 2018. 10. 31(수) 10:00

장소 : 원주군의회 문화강좌실(1층)

축! 전주매일 창간



제234회 원주군의회 임시회 : 2018.10.18 ~ 10.26(9일간)

전화 290-2532 팩스 290-2539